

## 한국 개화기의 문학연구

— 애국가의 가사를 중심으로 —

교양과 이 병 문  
조교수

### I. 서 론

우리나라가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문명을 개화한 지도 어느덧 1백년, 곧 1세기를 보내고 있다. 그 서두에서는 서구근대의식과 서구근대문명의 영향권 아래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을 신장하려는 국민의 관심 속에 개화운동이 일어났다.

이 개화운동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를 비롯하여 문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름대로 시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시로 소설로 참여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개화기문학은 민족문학의 전통적 맥락에서 단절된 듯하여 주춤거리다가 서구기독교 선교활동의 하나인 찬송가보급사업에 힘입어 새롭게 탄생한 문학이다.

우리의 개화기문학은 이와같이 한국근대문학에게는 서장의 막을 올리고 시대적 자각과 민족적 사명을 다하려 하였으나 다음 시대에 온 일본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무참하게도 새 썩이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다.

그나마 작가는 전문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화기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이정표도 세우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화기문학을 고찰하기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곤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개화기문학 가운데서 애국가의 가사(歌詞)에 대하여서 내용과 형식에 따라 흥미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개화기문학의 시대적 배경 (1)

구한말(舊韓末)의 사회는 모든 것이 새롭게 기운이 감돌던 분위기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험하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껏 늘려만 지내오던 서민계층이 지배계층의 무력과 허실에 대항하여 새로운 분위기에 눈뜨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민계층은 자아각성과 자아의식에서 행실의 개화·학술의 개화·정치·법률의 개화·기계의 개화·물품의 개화 등의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려 하였다.

이 무렵 국제적으로는 1866년의 프랑스함대와외의 관계인 병인양요와 1871년의 미국함대와외의 관계인 신미양요를 거쳤으며 이로 하여금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척화비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은 유명한 사건이다.

이때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도전하는 개국론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친청(親淸)을 배후세력으로 일어난 수구파와 친일(親日)을 배후세력으로 일어난 개화파로 나누어져서, 각각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일으켜 국사를 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서구세계의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게 된 개화인을 배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부터 구한말 정치세력은 무능과 불의와 비리로 말미암아 서민계층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갑오동학혁명이다. 그런데 이 갑오혁명은 불행하게도 일·청양국의 군대개입으로 실패하였으며 결국 양국의 군대만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셈이 되고 말았다.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된 일본은 우리의 내정간섭에 검은 마수를 뻗치고 이어서 민항후를 살해하고 끝내는 친일 내각을 내세우고 커다란 지배세력을 구축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국내·외의 급변하는 시국을 틈타서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에 이르렀고 을미사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는 유림선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타도일본을 외치며 일본세력과 충돌을 가졌었고, 항일투쟁하는 의병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유림선비들이 더러는 우국충신으로 항일의병으로서, 더러는 우국지사로서 민족시인으로서 싸웠던 것이다.

한편, 이들은 국사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 잡고자 상소문을 냈고, 의병을 모집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격려문을 사방에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상소문과 격려문에 투영된 시대의식과 투쟁의식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문학세계를 추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이 상소문과 격려문을 쓴 유림의 선비가 바로 시대의 고발자이고 저항의 참여자일 것이며, 이 시대의 문학인이다. 민족학교편의 「항일민족시집」에서는 「영웅의 모범」에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달고 있으니, 박 제상의 충성, 적 우로의 맹세, 조 중봉의 용맹, 이 순신의 전략, 광 재우의 용맹, 최 익현의 절개, 안 중근의 의기를 모범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배경을 관련지어 이 시대의 문학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의병장으로 싸운 분들 가운데 유 인석과 최 익현의 글을 든다.

憂國復憂國	(운평생 나라일만 근심하다가
天涯老白頭	하늘가에 흰 머리가 되었다
春風儻借力	봄바람에 어떻게 새 힘을 빌어와서
吹激嶺山憂	산더미같은 나라근심을 불어흘을까)

〈유 인석〉

皓皓奮畎畝 (백발을 휘날리며 밭이랑서 뛰어남은  
 草野願忠心 초야의 충성심을 바치려 함이라  
 亂賊人皆討 왜적을 치는 것은 사람마다 해야 할일  
 何須問古今 고금이 다를소나 물어 무엇하리오)

〈최 익현〉

유 인석과 최 익현은 의병장으로 항일투쟁한 분들이다. 특히 최 익현은 그 절개가 고대중국  
 의 백이숙제를 버금하게 하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강토를 짓밟힌 한맺힌 시대를 대표하던 분이  
 다. 이분들은 일본의 야수를 이 땅에서 내쫓아 내고야 말겠다는 민족저항운동에 앞장서 주었고  
 어떤 형태의 개화운동이나 강화타협도 거부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다짐하였을 뿐이었다.  
 이분들의 글에서는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을 다하자고 하였다. 온 평생을 나라근심하다가 백발  
 만 흩날린다고 하면서, 사람사람마다 왜적을 물리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분들의  
 충성심은 불사이군하고 선공후사하자는 신념이 불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한말 초야에 문헌 포의선비가 또 있었으니, 이가 황 현이다. 황 현은 스스로 나라를  
 지탱시킬 공로도 없고 선비로서 인을 이루려고는 하였지만 신민으로서의 충을 이루지 못하였  
 다고 하였다. 황 현의 신민의식은 조선왕조의 선비정신에 근거한 현실인식이었고 역사감각이  
 있었다고 하겠는데, 그의 삶은 선비적인 것이었고 그의 시는 저항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선비는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분별력이 있기에 선비의 삶은 곧 저항하는 삶이고,  
 저항하는 삶이기에 저항시가 나왔다고 본다. 황 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1910년 8월 29일 새  
 벽에 유림선비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삶을 마치고 죽음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 죽음은 삼강과  
 오륜을 배운 이 나라 선비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선비이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었으니, 그의 절명시 1절을 든다.

鳥獸哀鳴海兵顛  
 權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絕命詩 3연〉

그리고, 의병도 아니고 초야의 유림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으며 조정  
 사에 참여한 분으로서도 일본의 야만적 침입에 못마땅해 하고 조정의 정치적 처사에 동의할 수  
 없었던 지사가 있었다. 이는 민 영환이다. 민 영환은 세상이 다 아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만민  
 이 부러워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고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던가 알았던 조선조의 마지막 사람이었다. 을사보호조약이 무엇이고 통감부의  
 설치가 왜 말이나고 충간하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사면초가의 단신의 힘은 어찌할 수 없음

을 알았다. 그의 단장의 통곡을 듣는다.

아아! 국가의 수치와 백성의 욕망이 이제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쟁 속에 진멸되리하다. 대체로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 법인데 제공들은 어찌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제 영환은 한갓 한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로써 이천만 동포형제에게 사례하는 마이니, 영환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요 기필코 구천 밑에 가서라도 재군을 도울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형제들은 더욱 분투 노력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키라. 그렇게 하면 죽은 자는 마땅히 명명한 속에서도 웃을 것이다.

아아! 여러분은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후략)

이 글에서 「대체로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 법」이라 쓰고 있으며 「우러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로써 이천만 동포에게 사례하는 바」라고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을 외치고 있다.

초야의 초동목부가 사사로운 신의와 약속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할 줄을 알거든, 하물며 국론을 거론하고 국사를 집정한다는 조정의 고관대작이 국가의 존망을 사사로운 신의만큼도 깨닫지 못한 그때의 시대의식과 민족의식에 올린 경종을 들을 수 있다. 위에 적은 애국지사뿐일 까마는 이미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일으키려다 타향천리 타국만리에서 이름없이 사라져 간 별들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믿는다.

해방 40여년을 보내면서 다행이 국운이 회복되어 독립투사를 추모하고 독립역사를 정리하려는 민족의 염원을 다함께 한 오천만 민족의 슬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오천만 민족의 역사 사랑하는 결과라 본다.

## 2. 개화기문학의 시대적 배경 (2)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는 이미 일본침략을 퇴치해야 한다는 기운이나 일본침략을 타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보다 반세기쯤 먼저 개화한 그들이 개화의 경험과 시대의 여세를 탄 제국주의의 팽창세력을 업고 우리에게 무리한 접촉을 해왔을 뿐인데, 개화의 과정을 잘못이해한 몇몇 사람의 과오가 드러난 시기가 바로 이 앞의 시기였다. 「개화」라하면 정치적 개화·군사적 개화뿐이 아니라, 먼저 사회적 개화·문명적 개화·교육적 개화 등과 함께 개화분위기와 개화지도자의 성숙이 있어야 하였다.

우리의 처지에서서의 「개화」는 심하게 쓴다면 코끼리 구경식의 개화가 되었기에, 진정한 국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분간 못하고 그저 군대의 힘이 개화인 줄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한말 군대해산의 일이나 동학혁명군의 진압문제나, 그 뒷날 청·일전쟁 노·

일전쟁의 수라장이된 사실들이 군대의 동원이나 전쟁의 승패에 급급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의 「개화」는 「봉건」에 대한 개혁운동에서 뜻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그 뜻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러다가 보니,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봉건」 세력이 「개화」 세력을 지탄하게 되었고, 새로운 주권신장과 주권옹호세력으로 등장하여, 이들의 애국애족의 가르침은 구한말의 민족정신사를 이루었으며 다음 세대에게는 민족운동사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정치적 개화와 군대적 개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사회적 개화와 문명적 개화와 교육적 개화를 위해서 신문이 큰 몫을 담당하기에 이르렀으며 개화기 문학에는 팔목할 만한 몫을 하였다. 그 가운데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기에는 서구사상과 서구종교와 서구문명이 우리의 개화와 교육과 생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접근하여 왔던 시기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개화 그것의 밑바닥이 다름아닌 서구문화화의 모방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우리에게서 서구문화의 접근이 급선무로 등장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의 접촉과 교제는 큰 영향력을 받았다. 이리하여 사상과 종교에의 영향력이 컸지만 문학과 사회에도 그리하였다. 문학적 처지는 우리에게 공백기였으며 황무지였을 뿐이다. 기독교의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보급하는 중에 잠시 잊고 있던 시조문학과 가사문학이 우리의 머리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기독교 찬송가의 창곡과 가사(歌詞)가 새로운 문학적 기운을 싹트게 해 주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가형태인 「애국가사」가 나오기 끝 이어 「창가」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위에서 우리의 개화기문학이 출발되었으니, 본고에서는 구한말 개화기에 성행하였던 「애국가」의 「가사(歌詞)」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3. 개화기의 애국가사(愛國歌詞)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여 부르는 노래가 곧 애국가(愛國歌)이니,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음은 민족 문화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짙을 것이다.

1800년대 후반기에서 190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불리운 애국가의 가사는 17여편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민족이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구가할 수 없는 시대, 외세의 침투로 국가의 주권이 흔들리면서 자주독립이 걸으로는 있었지마는 사실상 주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1896년에 고종은 황제(皇帝) 자리에 오르면서 연호를 건양(建陽)이라 하고 국호(國號)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하여 형식만으로는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정부가 들어섰으나, 자주와 독립의 기운은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잃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를 겪으며 지조있는 인물과 소위 개화에 눈을 뜬 인물은 많은 우려에 잠기게 되었고, 개인적 문제를 떠나 국가·민족적 현실에 대한 사랑과 장래에 대한 연민 때문에

국가사랑과 민족사랑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이들 애국가사(愛國歌詞)에는 자주독립(自主獨立)과 문명개화(文明開化) 사상이 잘 나타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애국가사에는 임금사랑· 부모사랑· 태극기사랑· 독립신문사랑· 독립문사랑· 군대사랑· 학도사랑……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불너보세 불너보세 외국가를 불너보세”라고 앞 다투고 있었다.

나아가서 이 무렵에는 「애국가」뿐만 아니라 「독립가」 「동심가」 「익민가」 「성몽가」 「대군주 폐하탄신경축가」 등의 작품도 많았다.

애국가(愛國歌)라면 분명 노래로 불러야 하겠지만, 물론 어떤 것은 이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이 “합가”이니 “후렴”이니 하는 것들이 붙어 있어 더욱 확실하게 한다. 어찌면 노래를 부르기 위한 생각보다는 이 시대의 국난을 타개하려는 선구자로서의 국권의식과 민권의식을 부르짖고 있다고 믿는다. 조 동일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sup>1)</sup>

개화기시가가 신소설이나 신파극보다 개화기의 시대적인 문제, 특히 외세에 항거하는 의지를 더욱 광범위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후략)

그리고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에 대한 열망을 담은 애국가의 가사는 개화기를 맞아 개화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작가들의 그것들이 무엇보다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래가 나타내는 4·4조의 형식과 그 내용에 담겨진 자주독립· 부국강병· 남녀교육 등의 열렬한 외침은 그대로 당시의 시대대의를 반영하고 있다”<sup>2)</sup>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주독립사상을 비롯하여 문명개화사상과 부국강병의지를 가진 「익국가」의 「가사」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 보고자 한다.

#### (1) 자주독립사상을 가진 가사

아세아에대조선이  
 자주독립분명하다  
 합가  
 익야에야익국호세  
 나라위히죽어보세<sup>3)</sup>

던디구상륙쥬중에  
 자주독립분명하다

<sup>1)</sup> 조동일, “개화기의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문학, (서울: 신구문화사, 1974) p. 71.

<sup>2)</sup> 전광용, “신문학의 서장”, 한국현대사 3, (서울: 신구문화사, 1974) p. 324.

<sup>3)</sup> 니필균, “대조선 자주독립익국호는노력” 1연, 독립신문 1권 15호, 1896. 5. 9.

경향원근무론하고  
 씬을씨여진보호세 <sup>4)</sup>

즐겁도다즐겁도다  
 즈쥬독립즐겁도다  
 동포형제합심하여  
 부국강병하여보세 <sup>5)</sup>

아세아쥬반도국이  
 즈쥬독립분명하다  
 상패하고즐거온말  
 만권서에다홍손가 <sup>6)</sup>

만세로다만세로다  
 성상패하만세로다  
 만세로다만세로다  
 우리독립만세로다 <sup>7)</sup>

반갑고도쥬홀시고  
 즈쥬독립쥬홀시고  
 태극기를뉘히드러  
 이국가를불너보세 <sup>8)</sup>

어서밭비독립호세  
 이새를일치말고  
 동포형제뉘을씨여  
 쥬쥬독립하여보세 <sup>9)</sup>

우리나라대조선은  
 쥬쥬독립분명하다  
 쥬쥬독립되어야하면  
 문명기화도홀시고 <sup>10)</sup>

4) 한명원, "이국가" 1연, 독립신문 1권 39호, 1896, 7.4.  
 5) 윤태성, "이국가" 1연, 독립신문 1권 45호, 1896, 7.18.  
 6) 박기림, "이국가" 1연, 독립신문 1권 51호, 1896, 8.1.  
 7) 최병희, "이국가" 6연, 독립신문 1권 64호, 1896, 9.1.  
 8) 김종섭, "이국가" 4연, 독립신문 1권 66호, 1896, 9.5.  
 9) 최영구, "이국독립가" 2연, 독립신문 1권 67호 1896, 9.8  
 10) 리영언, "이국가" 1연, 독립신문 1권 68호 1896, 9.10

잠셔보세잠셔보세  
대조선국민들아  
김히든잠번뜻셔여  
즈쥬독립도의주세<sup>11)</sup>

어화쥬홀시고  
즈쥬독립항여보세  
즈쥬독립항량이면  
영준만쥬항앗세라<sup>12)</sup>

위와같이 “즈쥬독립”을 주장하던 애국가들이 불리운 시기는 아마도 대한제국이 서고 고종이 황제에 오르던 무렵이고, 국민은 급변하는 세계사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마음이 들뜨고 바빠기만한 때이었다. 사실 밀려오는 서구문화와 문명은 너무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으며 물려오는 외세는 너무나 우리를 압박해 왔다.

이에 우리의 정치·사회·문화의 분위기로는 외세의 침투를 자의든 타의든 그대로 놓아둘 수만은 없고,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들 앞에서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이 새로운 길은 자주독립과 문명개화를 촉진하는 길로 근대의식을 말한 것인데, 어떻게 보았는지 소개한다.

개화운동은 근대운동이요 개화사상은 이른바 근대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화사상은 근대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된 것이요 근대의식이란 한 말로 요약하여 민족의식과 민권의식의 자각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애국정신을 통하여 일어난 애국가운동은 전국민의 개창(皆唱)운동으로 전개되는 한편 개화사조를 노래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었다.<sup>14)</sup>

문학적으로 그 바탕을 형성한 것은 자주독립과 애국가사상을 고취하고 근대문명을 예찬한 애국가·독립가와 개화가사 및 창가 등과 같은 개화시가에서 가능했다.<sup>15)</sup>

11) 김철영, “인국가” 1연, 독립신문 1권 70호 1896, 9.15.

12) 인응선, “인국가” 7연, 독립신문 2권 11호 1897, 1.28.

13)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설”, 조지훈전집 6, (서울:일지사, 1973) p.339.

14) 이우선, “노래속에 겨레를”, 한국현대사 6, (서울:신구문화사, 1974) p.430.

15)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 (서울:시문학사, 1981) pp.12~13.



이 근대의식을 바탕으로 개화사상이 형성되었는데, 이 근대의식은 민족의식이자 민권의식이었으니만큼, 이 위에 개화사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개화사상과 개화사조를 노래하는 새로운 단계가 애국가운동으로 번진 시기는 1890년대라고 본다.

그런데 애국가운동이 전개되던 바로 이전은 서구문명의 세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려니와 바로 이후는 개화의 진정한 본질에서 이탈하여 어지러운 세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180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서구문명의 세력과 서구화한 일본세력이 시작도 중간도 없이 몰려와서 우리를 하여금 빼앗기지 않은 조국인데 빼앗겨버린 조국처럼 슬프게 하였고 빼앗기지 않은 주권인데 빼앗겨버린 주권처럼 괴롭게 하였으니 「개화는 망국이다」<sup>16)</sup>는 술화의 글도 있다.

때문에 이 마당에서 애국가운동과 애국가 가사가 가진 의미는 우리에게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하며 괴로움을 이기고 일어서야 하는 애국 애족의 메시지였다고 믿는다. 위에 든 예문들에서,

“즈쥬독립분명하다”

“즈쥬독립즐겁도다”

“우리독립즐겁도다”

“즈쥬독립조호시오”

“즈쥬독립호여보세”

“즈쥬독립도와주세”

라고 모든 국민에게 확신과 기대와 단결을 격려하고 있다.

## (2) 문명개화사상을 가진 가사

자파 세력의 정치적 득세를 위해서 그렇게 수다스러움을 피우던 인사들은 어느 편에서도 대아적(大我的)이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부터 실사구시학(實事求是學)을 밝혀서 문명개화한 분들도 있었다. 이분들은 역사상 가장 실질적이고 생활적인 문명개화인이라 하였으며, 1800년대 중반기에 들어와서 서구를 통하여 일본을 통하여 개화한 분들도 많으니, 곧 1894년 갑신정변의 주역들인 김 옥균·박 영효와 1896년 독립신문발행의 주역인 서재필과 서유견문의 주역인 유길준 같은 분들이다.

이분들은 가깝게는 일본에서 멀리는 구미에서 신천지의 문명과 신시대의 개화를 체험하고 받아들였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아래와같이 「개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sup>17)</sup>

무릇 개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온갖 사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화의 경지가 어디까지라고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재주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의 고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또 한편 국민의 습속과 국가의 규모를 따라

<sup>16)</sup> 홍일식, “한국문학·예술운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7. (서울: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p.301

<sup>17)</sup> 유길준, “개화의 등급”, 서유견문, (서울:박영사, 1976.) p.112.

그 차이가 생긴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개화하는 과정이 한결같이 얇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1800년대 후반기에 시대적 사조를 타고 불리운 「애국가」 속에서는 문명개화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살펴 본다.

깊은잠을어서서여  
부국강병진보호세  
놈의천디밭개되니  
후회막급엄시호세<sup>18)</sup>

남너엄시입학하야  
세계학문비화보자  
교육하샤지회되고  
기화히아사름되네<sup>19)</sup>

턴디구상륙쥬중에  
즈쥬독립분명호니  
경향원근무론호고  
꿈을씨여진보호세<sup>20)</sup>

대표선국인민들은  
독립신문자세보오  
방죽흙을너브리고  
꿈들이나어서씨오<sup>21)</sup>

문명진보호는썩에  
조선관민일심호세  
시호시호부지력라  
어서밭비공부호세<sup>22)</sup>

남으나라인민들은  
밤낮스료교육호네

18) 니필균, “애국가” 3 연

19) 니필균, “애국가” 5 연

20) 한명원, “애국가” 1 연

21) 박기림, “애국가” 1 연

22) 최병희, “애국가” 5 연

대조선국민민들은  
어서빳비교육항세<sup>23)</sup>

기화기화헛말말고  
실상기화항여보세  
독립문을크게짓고  
태극기를높히달세<sup>24)</sup>

잠써보세잠써보세  
대조선국민민들아  
김히든잠번듯써여  
즈쥬독립도와주세<sup>25)</sup>

이러한 애국가의 가사들은 애국애족사상과 자주독립사상을 주장하여 나라 안팎에 우리의 자주독립을 널리 알리면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급한 일이 문명개화하는 일과 부국강병하는 일임을 노래하였다.

문명개화하여 부국강병하고 또 힘있는 자주독립국이 되는 날 우리는 “일청국을 압제하고” “지나국을 압누르다”라고 노래하였다. 청(淸)과 일본(日本)이 각각 “大”자를 얹혀서 “大清國”이니 “大日本國”이니 하던 것처럼 우리도 “大”자를 붙여서 “大朝鮮國”이나 “大韓帝國”이 되는 것을 바라던 것이다.

위 예문에서도

“김흔잠을어서써여 부국강병항여보세”  
“김히든잠번듯써여 즈쥬독립도와주세”  
“기화기화헛말말고 실상기화항여보세”

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작가들은 반드시 어떤 이념이 있는 개화일꾼만은 아니다. 정부관리로부터 일반국민 내지는 학생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되었는데, 김 학동에 의하면,<sup>26)</sup>

개화시가의 한 유형이 되고 있는 애국·독립가 등은 자의식과 개체감이라는 근대적 관념과

23) 최영구, “인국독립가” 7연

24) 리영언, “인국가” 4연

25) 김철영, “인국가” 1연

26) 김학동, 전계서, p.54.

는 무연한 것으로 그 심미정보다는 사회적 기능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자주독립이나 문명개나 부국강병 등과 같은 관념은 개성적이 아닌, 공적 반응인 민족의식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각 계층의 작가들은 뚜렷한 개체의식을 노래하기 보다는 근대화 물결 속에서 근대화에 대한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으로 확대되는 시대의식을 앞세워 민족의식을 노래하면서 나아가서는 타국 타민족의 특색에 대조적으로 배달의 혼을 고취시키고 배달겨레의 영광을 선양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개화기의 작품을 놓고 다소 회의적인 면을 지적한 듯한 글도 있다.<sup>27)</sup>

... 작품 가운데 서구 및 일본의 침략 야욕을 경계하고 민족적 저항을 내세운 작품은 아주 드물었다. 또한 서구수용과 그를 통한 근대화의 차원 구축의 전제로 민족의식의 고취를 주요 점으로 삼고 있는 작품도 잘 나타나 있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진보나 개혁열에 들떠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작가가 전문적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통시가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런대로 우리 문학사상에서는 말은 바 제 몫은 해냈다고 믿는다.

하기야, 서구문명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구체제를 반대하거나 의견과 태도에서 피차 공방에 열심한 일도 있었다. 곧 “전자인 서구문명의 수용을 거부하던 보수사람의 사람은 완고한 보수주의자요 국권수호자로서 반제국주의의 견해를 가졌으며, 구체제를 반대하던 개화출신의 사람은 반봉건주의자요 낭만추구자로서 서구추종론의 견해를 가졌다.”<sup>28)</sup> 는 때문이다.

개화기 동안을 지나오면서, 서구수용을 인정하던 사람은 그러면서도 서구침략의 야욕을 경계하여 민족의식과 민족적 자각을 기도하였으며, 주체성을 확보하려던 사람은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기도하였다. 이렇게 운동의 방향이 서로 공방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다함께, “깊은 잠을 깨우치려” “깊은 꿈을 깨우치려” 또는 “실상개화하여 부국강병진보하세” 라고 문명개화를 주장하고 노래하였지만, “오랜 잠에서 깨어난 한반도는 개화의 전통을 몸 전체로 겪으며 도전과 좌절로 점철된 시련의 역사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sup>29)</sup> 는 것이다.

### (3) 부국강병을 노래한 가사

자주독립을 이루고 문명개화를 이루어서, 여기에다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은 이 시대의 민족에게 중대한 염원이고 운동이었다. 우리의 국력이 쇠잔해 갈수록 우선 가까운 침략주의자 일

<sup>27)</sup> 김용직, “개화기문인의 의식유형” 한국문학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2) p.481.

<sup>28)</sup> 김용직, 상계논문, p.481.

<sup>29)</sup> 임중빈, “한말저항시가의 저류”, 한말저항시집, (서울: 정음사, 1979) p.248.

본에게 더욱 모멸을 받고 또 국제관계에서도 불평등한 관계가 되면, 우리 현실은 문자 그대로 암울뿐이라는 시대의식과 민족의식 위에 부국강병문제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김 용직의 이야기는 실감있는 글이다.<sup>30)</sup>

문호개방과 함께 서구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노린 것은 영토확장의 야욕이었고 경제적 침략의 효과적 수행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에 맞서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가운데 서구의 선진문명을 수용해 나가야 했다. 그리고 나아가 부국강병·자주독립의 꿈을 실현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게 이 무렵이다.

한 마디로 반제국주의의 활동을 통한 국권수호와 근대화의 시도를 통한 부국강병의 기틀 마련이 개항기 한국사회를 특징지은 두개의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이제 부국강병의 깃발이 드러난 예문을 애국가의 가사들에서 살펴 본다.

김흔잠을어서쳐여  
부국강병진보호세  
놈의천덕박게되니  
후회막급업시호세<sup>31)</sup>

열떡열나열떡열나  
부국강병열떡열나  
열심호세열심호세  
충군이국열심호세<sup>32)</sup>

즐겁도다즐겁도다  
근주독립즐겁도다  
동포형제합심호여  
부국강병호여보세<sup>33)</sup>

스릉공상힘을써서  
부국강병되야보세  
만세만세만만세  
대군주패하만만세<sup>34)</sup>

30) 김용직, 전제논문, p.476.

31) 니필군, “익국가” 3연

32) 년경탁, “익국가” 3연, 독립신문 1권 19호, 1896, 5.19.

33) 윤태성, “익국가” 1연

34) 최영구, “익국가” 8연

상하스랑서로흐면  
부국강병즈연되고  
상하의심업서지면  
즈쥬독립왜 못하리 <sup>35)</sup>

교련양병경밀하야  
턴하강병되얏세라  
턴하강병되온후에  
만국예일독립하세 <sup>36)</sup>

이 부국강병을 노래한 것이야말로 1800년대 중반기부터 뼈에 사무친 문제였다. 때문에 근대의식에서 자각하게 된 우리 처지에서는 더욱 절실한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고 국권수호운동의 절대점이었다. 앞 글에서도 이야기하여 왔지만 1866년 프랑스함대와의 병인양요사건이나 1871년 미국함대와의 신미양요사건이나 부국과 강병에의 열망을 가히 헤아릴 수가 있다.

과거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급변하고 급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왔었다. 그러나, 애국가의 가사를 가운데 “자주독립”도 많이 노래하였고 “문명개화”도 많이 노래하였지만, 이 “부국강병”이야말로 외세의 침투 특히 일본의 침략마수에 꼭 이겨야 하는 민족지상과제이었다

#### (4) 과잉 감정을 가진 가사

넘쳐나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반복되는 곡이나 가사를 쓰는 것이다.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의미전달을 강조한다든가 표현확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반복되는 구절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보기에 조잡스럽지마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할 것이 아니다. 표현하는 형식과 기교는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 내용과 주장은 오로지 독립과 개화와 부국이었다. 특히 「합가」라는 것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선창하는 것이라면 한 두 사람이 아닌 대중들이 함께 흥겹게 정이 넘치도록 노래부르던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믿는다. 조 지훈도 아래와같이 지적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개화가사는 모두 전래의 타령조·낭독조나 가야금·거문고에 맞춘 것이 아니면 꽤 지나칭칭나네식 민요조로 한 사람이 매기고 중인이 받아서 군창(群唱)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 자명하다.

<sup>35)</sup> 김철영, “익국가” 12연

<sup>36)</sup> 인응선, “익국가” 9연

<sup>37)</sup> 조지훈, 전계논문, p. 369.

이제 애국가의 가사들에서 반복되고 또 감정이 넘치는 예문을 살펴 본다.

봉축항세 봉축항세  
 이국태평봉축항세  
 즐겁도다 즐겁도다  
 독립즈쥬즐겁도다<sup>38)</sup>

씻뛰여리씻뛰여라  
 우리명신씻뛰여라  
 향기롭다향기롭다  
 우리국가향기롭다.<sup>39)</sup>

영화롭다영화롭다  
 우리만민영화롭다  
 높흐시다높흐시다  
 우리님군높흐시다.<sup>40)</sup>

만세만세 만만세는  
 대군주폐하만만세  
 장성훈기운으로  
 텃하각국넘볼세라.<sup>41)</sup>

즐겁도다 즐겁도다  
 즈쥬독립즐겁도다  
 동포형제 합심하여  
 부국강병 하여보세<sup>42)</sup>

인의동방씻치피니  
 건양원년 초출일세  
 씻피었네씻피었네  
 만민화락씻피었네.<sup>43)</sup>

만세로다만세로다  
 성상폐하만세로다

38) 던경택, “이국가” 1 연

39) 던경택, “이국가” 2 연

40) 던경택, “이국가” 5 연

41) 던경택, “이국가” 6 연

42) 윤태성, “이국가” 1 연

43) 최병희, “이국가” 1 연

만세 로다만세로다  
우리 독립만세 로다.<sup>44)</sup>

명부를보호후후  
전국민인 교육식혀  
넋지말세넋지말세  
합심두즈넋지말세<sup>45)</sup>

김히든잠어서씨여  
일심합력 하여보세  
스 랑스 랑나라스 랑  
나라위히스 랑호세<sup>46)</sup>

스 롱공상힘을써서  
부국강병되야보세  
만세 만세만만세  
대군주폐하만만세<sup>47)</sup>

불너보세 불너보세  
이 국가를 불너보세  
님군스 랑몬져스 랑  
빅성스 랑후에스 랑<sup>48)</sup>

도와주세 도와주세  
우리정부 도와주세  
스 랑호세스 랑호세  
우리인민스 랑호세<sup>49)</sup>

스 랑스 랑스 랑이야  
빅성 들은정부스 랑  
스 랑스 랑스 랑이야  
정부에는빅성스 랑<sup>50)</sup>

44) 최병희, “이국가” 6 연

45) 최영구, “이국가” 3 연

46) 최영구, “이국가” 5 연

47) 최영구, “이국가” 8 연

48) 리영언, “이국가” 5 연

49) 김철영, “이국가” 4 연

50) 김철영, “이국가” 5 연



위의 예시문에서 보았듯이, 반복되는 귀절에서 오는 감정노출은 감추기 어려운 정도이다. “대조선즈쥬독립익국호는노력”를 함께 부르기로 하였지마는 그저 의식이나 형식에서가 아니라 “즐겁도다 즐겁도다” “영화롭다 영화롭다” “만세만세만만세” “대군쥬폐하만만세” 라고 외치면서 또한 주장하였다고 본다.

「강원도 김화군에 유쥬훈 친위 이대 터경교 교관직 부교 인음선 익국가」에서는 “어화쥬홀시고”가 무려 9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어화쥬홀시고

국부민강흥여불가 (6연에서)

어화쥬홀시고

즈쥬독립흥여보세 (7연에서)

어화쥬홀시고

우리군터창시헛네 (8연에서)

어화쥬홀시고

데일독립흥온후에 (10연에서)

어화쥬홀시고

우리조선만세로다 (13연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는 “국부민강” “즈쥬독립” “군터창시” “데일독립” “조선만세”를 그저 반복한 흥겨움일지 안타까움일지 외치고 있는 “어화쥬홀시고”이니만큼,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어렵게 시작되어 진행되는 “개화”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상당한 긍정과 사랑과 수용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예시된 애국가의 가사들은 고유 호흡인 4·4조가 돋보인다. 조선조 가사문학 이래 특별한 형태적 변화가 없는 이상 별스럽게 들리지는 않다. 다만 조선조 가사문학이야 가사(歌詞)일 수는 없다 하겠고, 개화기 「익국가」는 “대조선 즈쥬독립 익국호는 노력”라고 한 만큼 가사(歌詞)이었으며 애국하는 노래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때 애국가의 가사들은 기독교 찬송가처럼 4·4조가 많았으며 노래부르기 위한 명분에서 지어졌다고 본다. 이것들이 기독교 찬송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찬송가 가사로써 예를 보이고 이 유선에게도 듣는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sup>51)</sup>

1896년 5월 9일자 「독립신문」에 보이는 니 필균의 「자주독립가」를 위시해서 “이 무렵의 수 많은 가사들이 예의없이 4·4조라는 것은, 모두가 썩썩한 행진에 발맞출 수 있는 2박자 계통의 멜로디에 얹히기를 예상하고 썩여진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sup>52)</sup>

애국가의 가사들이 당시 찬송가를 얼마나 맹종하였는지를 다음에 두 곡의 찬송가로 비교해 본다.

저높은곳 을향하여  
날마다나 아갑니다  
내뜻과정 성모두어  
날마다기 도합니다  
내주여내 발볼드사  
:  
:

저높은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뜻과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주여 내발볼드사  
그곳에 서게하소서  
:  
:

전자가 일부러 4·4조에 맞추려 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후자는 평상시처럼 풀어서 5·3 (또는 3·5)조로 적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너무나 4·4조를 의식한 표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후자의 8·8조가 자연스러운 호흡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개화기이니만큼 가사나 창곡이 찬송가에서 되도록 영향을 받으려 하다 보니 그렇게 4·4조가 많아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5) 「독립신문」 외에 있는 애국가사

독립신문 외에 여기저기에 실려 발표된 애국가사가 두세 편이 더 있다. 곧 1904년 5월 13

<sup>51)</sup>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3장 (서울: 한국찬송가공회, 1984)

<sup>52)</sup> 이윤선, 전계논문, p.454.

일자 「황성신문」에 발표된 “上帝난 우리 皇帝를 도으소서 — 大韓帝國愛國歌”와 1907년 10월 30일자로 밝혀진 배 증섭씨 소장품인 “聖子神孫 千萬年은 — 愛國歌”와 그리고 윤치호 작품인 “愛國歌 — 찬미가 제 14”<sup>53)</sup> 들이다.

이 애국가사들은 앞에서의 「독립신문」에 발표된 가사들과는 다르게, 4·4조 아니고, “4·4조의 형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차 7·5조 혹은 8·5조 등의 새로운 형식으로 변천하여”<sup>54)</sup>에서 말하듯 8·6(8·5)조이며, 더러 국한문혼용체가 있으며, ‘大韓帝國愛國歌’ 이니 ‘開化期愛國歌’ 이니 또는 ‘찬미가 제 14’ 이니 하는 부제가 있는가 하면, 제목은 따로 있고 부제가 “愛國歌”라고 되어 있다. 이와같은 예를 소개한다.

上帝난 우리 皇帝를 도으소서  
- 大韓帝國愛國歌

上帝난 우리 皇帝를 도으소서  
聖壽無疆 하사  
海屋籌를 山갓치 쓰으소서  
威權이 巖瀛에 썬치사  
於千萬歲에 福祿이 無窮케 하소서  
上帝난 우리 皇帝를 도으소서

聖子神孫 千萬年은  
- 愛國歌

1. 聖子神孫 千萬年은 우리 皇帝이오  
山高水麗 東半島는 우리 本國일세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이하 3연생략)

愛國歌  
- 찬미가 제 14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오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하 3연생략)

<sup>53)</sup> 임중빈, 한말저항시집, (서울 : 정음사, 1979) pp.36~40

<sup>54)</sup> 임중빈, 전개논문, p.249.

윤 치호의 「찬미가 제 14」는 현재 우리가 노래부르고 있는 「애국가」와 가사가 같다 해도 무방하다. 분련하는 일도 1, 2, 3, 4와 같이 숫자를 쓰고 있으며, 후렴도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그때나 이제나 같으며, 호흡도 8·6조이며 표기 문자도 국문전용이니 말이다. 다만, 내용에 쓰인 말들이 시대가 앞선 것들은 “독립” “개명” “개화” “교육” “부국” 등과 같은데, 윤 치호의 찬미가나 지금의 애국가나 모두 “나라만세” “우리기상” “일편단심” “나라사랑” 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무렵 가장 먼저 시대의식을 드러낸 것이 애국가이었으니 이는 또한 “예술성과 함께 시대적 사명을 다함에 있다.”<sup>55)</sup> 고 할 것이다.

### Ⅲ. 결 론

우리는 1860년대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을 개화기라 한다. 이 개화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조시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전통과 문화에까지 도전적인 새로운 개화운동이 그 기운을 담당하였다.

이 개화운동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깊이 든 잠을 일깨워 주었으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값있는 전통과 문화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개화운동이 남긴 개화기문학에 유념하면서 개화기시가를 낱아 준 애국가를 살펴 보았다. 애국가의 가사 가운데는 “불러보세 불러보세 애국가를 불러보세”라는 귀절이 있는데, 이러한 노래들이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졌는가를 밝혀 보았다.

개화기시가의 하나인 애국가의 가사들은 이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가(國歌) 또는 애국가(愛國歌)라고 말하지마는, 국가라는 표현이 알맞을 것이고 애국가라면 나라를 사랑하여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본고에서 개화기문학인 애국가사를 살펴 본 것도 애국가는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개화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때 사람들보다 투철한 민족의식과 주권의식을 근대의식 아래 가졌으며, 그리하여 그 위기의식을 민족의식으로 승화시키려 하였다고 생각한다.

투철한 민족의식으로는 자주독립과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의 열망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나라사랑·부모사랑·태극기사랑·독립신문사랑·군대사랑·학도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었다.

한편, 이들 애국가사들이 가진 한국문학사상의 위치는 조선조시대의 가사문학과 1900년대의 창가문학의 중간쯤에 있게 된다. 따라서 앞의 가사문학이나 뒤의 창가문학보다는 그 형태가 세련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훌륭히 제 몫을 다하였다. 곧 시대적 사명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문학으로는 그 어느 면에서도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내용을 가졌

<sup>55)</sup>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서울·열화당, 1982) p.11.

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개화기문학과 신문학을 구분하여서, 개화기문학에는 애국가사·창가·개화가사로 묶고 신문학에는 종전대로 신소설·신체시로 묶은 것을 찬동한다. 그리하여, 조선조문학과 신문학 사이에 개화기문학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김용적, “개화기문인의 의식유형”, 한국문학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2)
2. 김학동, 한국개화기 문학연구, 서울: 시문학사, (1981)
3. 독립신문, 제 1권 15호, 19호, 39호, 45호, 47호, 51호, 64호, 66호, 67호, 68호, 70호 제 2권 11호.
4. 유길준, “개화의 등급”, 서유견문, 서울, 박영사, (1976)
5. 이유선, “노래속에 겨레를”, 한국현대사 6, 서울: 신구문화사, (1974)
6. 임중빈, 한말저항시집, 서울: 정음사, (1979)
7. 전광용, “신문학의 서장”, 한국현대사 3, 서울: 신구문화사, (1974)
8. 조동일, “개화기의 우국가사”, 개화기의 우국문학, 서울: 신구문화사, (1974)
9. 조지훈, 조지훈전집 6, 서울: 일지사, (1973)
10. 찬송가, 서울: 한국찬송가공회, (1984)
11.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서울: 열화당, (1982)
12. 홍일식, “한국문학·예술운동사”, 한국현대문화사 대계 7,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2)

## A Study on Literature of Korea's Enlightened Age

Lee Byong Moon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We call nearly almost half a century from 1860's an enlightened age. During this period our country underwent a large number of change. A defiant new movement of enlightenment from politics and society to tradition and culture took charge of that tendency.

The Enlightenment, I think, awakened our deep sleep in the affirmative answer, yet damaged our valued tradition.

This writer examined patriotic anthems which had formed poems of an enlightenment age in the affirmative sides, being mindful of enlightenment literature that the movement had produced. There are words in a patriotic anthem reading as follows, "Sing a song! Sing a song! Sing a patriotic anthem!" The writer examined what contents and forms this anthem contains.

The words of a patriotic anthem, one of poems at the enlightened age, show a picture of this period and society as it is. Nowadays there is a patriotic anthem or a national anthem but it may be suitable to express it a national anthem. And a patriotic anthem may be a song of loving a country. As patriotic anthems are songs that love country and countrymen, in this study, the writer examined words of patriotic anthems, literature of enlightened age.

I think that the people who lived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ed age had national consciousness and sovereign consciousness, and they tried to sublime the critical consciousness to the national consciousness.

For the national consciousness to the bone we may call the heart's desire for sovereign independence,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wealth and armament of a country. In addition to it, there is a love of a country, parents, the tae-guk flag, independence newspapers, the military, student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historical place of Korean literature in which these words of patriotic anthems are lie in about the middle between the literature of Korean verse, the literature of the Yi dynasty period, and the literature of singing during 1900's. So the former, the literature of an old form of Korean verse, was less polished and reorganized in the form than the latter, the literature of singing. But those contents worked well enough to do their share; those accom-

---

plished their mission of an age. For those bore new sensibilities and new contents in all sides as literature.

From now, I'd like to distinguish the literature of enlightened age from the modern literature. And I want to collect patriotic anthems, singings and enlightened old form of Korean verse under the literature of enlightened age, and a new-style novel, a new-style poem under the modern literature as usual. Therefore, I think that we should establish the literature of enlightened age between the literature of the Yi dynasty period and the modern literature.